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 및 향후과제*
- 제주도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The Achievements and Future Tasks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 Focusing on Analysis of Jeju Citizens'
Awareness -

오 윤 정** · 이 강 영***

< 목 차 >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본 논문은 연구자가 지도교수로 참여한 제주대학교 리더스아카데미(JLA) 2기 3팀의 데이터 일부를 활용하였음.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행정학박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실장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특별자치도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주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도민인식조사를 통해 평가해보고, 향후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향후 국제자유도시의 도민들의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도민공감대가 형성되는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도민 233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차분석, t-test ANOVA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3점대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t=4.462, p<.001$), 연령별($F=5.101, p<.01$), 직업별($F=4.179,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추진전담기관인 JDC에 대한 인지도는 이름은 들어왔으나 하는 일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65%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 JDC의 기관 성격을 제주도 산하 공기업 및 제주도산하 지방행정기관으로 잘못 알고 있는 비율도 약 45%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70%의 응답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성과는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보통수준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만족도와 일자리 창출만족도는 보통수준으로, 환경보존 만족도는 평균 2점대 초반의 조금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자유도시로서 역점을 두어야 과제는 자연경관보존사업, 교통인프라개선사업, 원도심재생사업, 풍력에너지 등 에너지 개발사업의 순으로 나타났고, 추진전담기구인 JDC의 소속에 대해서는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국제자유도시사업에 대한 대도민 홍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국내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개발의 열매가 지역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JDC의 특수성 및 사업추진의 장점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사업에 대한 도민신뢰도 제고 및 도민과의 소통 창구 확대 등이 필요하다.

핵심어: 국제자유도시, JDC, 제주도민, 성과 평가

I. 서론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한 이래 가파른 경제 성장 및 관광객의 대폭 증가 등 제주사회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6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65만명, 관광객 1,400만명, 투자유치 누적액 15조, 지방세 1조2천억 등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제주발전연구원, 2016).

제주발전의 새 지평을 연 국제자유도시 출범 14년이 지난 지금 제주지역은 그간 진행된 국제자유도시 사업추진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의 문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문제, 주차난 심화, 지가 폭등 등 발전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 또한 노정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연구는 양영철(1999)의 국제자유도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연구를 시초로 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과 정책 현안(이종수,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현황과 평가(허찬국, 2004),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과제와 발전전략 모색(최재현, 2005),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제도의 발전방향(정수연, 2013), 제주의 통합비전,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신용인, 2013),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조성찬, 2016)의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매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해 평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간헐적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전문가조사, 공직자 대상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쓰레기 문제, 외국인 관광객의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 증가, 제주도 토지 외국인 매매 증가 등이 나타남에 따라 일반도민들도 제주지역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별자치도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주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도민인식조사를 통해 평가해보고, 향후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념 및 추진배경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이나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기업의 활동에 대해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시”를 지칭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합작품이다(최재현, 2005).

1998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방침이 표명된 이래, 2002년 1월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4월1일에 공포되었다. 또한 후속조치로서 2005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¹⁾하였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기본 구상 추진경위 및 진행과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경위 및 진행과정

시기	주요내용
1998.9.25	김대중 대통령 순방시 경의
1998.10.19	국제자유도시 기획단 구성(실무팀 12명, 자문팀 16명, 국제정치, 경제학자, 국제변호사, 전문가 등)
1998.10.20~12.30	기본구상(안) 마련
1999.1.22	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 학술세미나 개최(주최: 한국지방자치학회) 의견 제시
1999.3.5~3.9	주한 EU 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 회원 초청 토론회 개최
1999. 3.15~3.31	대통령에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기획단 구성
1999.9~2000.6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미, 존스랑라살사)
2001.1	건설교통부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단’ 설치
2001.9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및 추진기획단’ 설치

1)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 개정안: 제주도 행정체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 및 향후과제

2002.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공포
2002.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공포
2002.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설립
2003.2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고시
2003.3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 수립
2005.4	JDC 본사 제주도 이전
2006.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

출처: 양영철(1999)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016)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설립된 이후, 국제자유도시계획의 추진주체로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신화역사공원, 항공우주박물관, 꽃자왈도립공원, 내국인면세점 운영 등이 있다.

〈표 2〉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목적	추진경과	비고
제주영어교육도시	해외유학 수요 흡수를 통한 유학수지 적자개선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국제학교에 약 2,858명 학생 재학중 - St Johnsburry Academy(미) '17.9월 개교예정 - 영어교육센터('14.7), 단독주택 241필지 공급, 공동주택 1,589세대 입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1천㎡/사업비 1조7,800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제주의 의료사업 활성화 및 글로벌 의료환경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녹지그룹과 사업협약 체결('12.10 778천㎡, 1.5조 투자규모) - 1단계 사업(휴양콘도 등) 준공('14.8), - 2단계 사업 진행중(녹지국제병원, 웰니스몰 등 건립중) 	서귀포시 동흥동 일대 1,539천㎡ / 사업비 9,050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 산업단지 전체 준공인가 및 개발사업 완료('10.6)	제주시 아라동 일대 1,099천㎡

	조성으로 제주경제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 22개사, 임대 108개사 입주 등 정상운영중 * '15년 입주기업 매출액 : 1조 2,168억원, 고용인원 : 1,964명 - 공동주택 입주기업 임직원 특별공급('16.5) 	/ 사업비 약 5,800억원
신화역사 공원	제주와 세계의 신화와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하는 관광휴양식음 등이 어우러진 한국형 복합리조트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R, H지구(2,319천㎡) 램정그룹 토지매매 계약('13.10) - 램정제주개발(주) A, R지구 건축공사 착공('15.2), 공사중 - 램정(홍콩)과 겐팅(싱가포르) 합작회사 FDI 도착액 7.7억불('16.6) - J지구 탐방로 조성공사 준공('16.6) - 청년인재 해외연수 및 취업지원 지속추진('15년 57명, '16년 37명)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3,987천㎡/사업비 1조 1,010억원
항공우주 박물관	항공 우주를 테마로 한 관광과 체험중심의 교육관광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자로 JDC 선정('08.12, 공군) -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계약 체결('09.2, 제주도, 공군, JDC) - 항공우주박물관 개관('14.4) 운영중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112천㎡ / 사업비 1,150억원
곶자왓 도립공원	제주의 대표적인 자연자원인 곶자왓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곶자왓 체험학습의 장 및 지속가능한 이용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2009-2012): 탐방로, 휴게쉼터, 주차장 - 2단계(2013-2015): 탐방안내소, 곶자왓전망대, 생태체험학습장 - 준공후 제주도 이관('15.12)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1,547㎡/ 천총사업비 57억원
내국인 면세점	국제자유도시 개발제원 조성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현황(3개소) - 공항면세점(3,028㎡) : 제주공항 국내선 2층 출발장 - 항만면세점(516.3㎡) : 제주항 6부두 및 2부두에 운영 	- 이용제한 : 1회당 구매한도 600불, 이용횟수 년 6회 이내

출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016)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2. 선행연구 검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나면서 초기에서 국제자유도시 방향성 및 전략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고, 2010년 이후 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 및 투자유치제도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최근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지역사회 갈등 등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정책의 기본구상단계에서 수행된 양영철(1999)의 연구에서는 국제자유도시의 전제에 대해 고용증대의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지역통제력 약화, 외부인에 의한 지방정치 통제, 자연환경의 급속한 파괴, 일차산업의 침체와 몰락, 지역주민의 위상과 정체성의 급락, 기존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퇴출 등 부정적인 관점을 피력하였고, 국제자유도시의 방향을 우선 지식산업, 문화산업, 환경산업에 집중시켜야 한다. 둘째,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것, 대형만을 찾지 말고 생태관광, 체험관광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도민의식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배중에 노력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최재현(2005)의 연구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고찰해 봄으로써 인구의 노령화, 여가활동의 증대, 장소공간의 중요성, 지자체의 역할 확대와 경쟁 심화, 환경시대의 도래, 도시간 상호보완성 증대 등의 여건변화 및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바람직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방향으로 제주브랜드화 전략,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도시 전략, 산업연계망과 혁신역량의 극대화 전략, 차별성 추구를 통한 경쟁력 확보 전략, 제도 및 조직정비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정수연(2013)의 연구에서는 국제자유도시가 명실상부하게 사람, 자본,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가속화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투자유치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소모적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기조를 재검토하고, 도민들의 투자유치정책 신뢰도를 제고시켜,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제주도 전체의 역할을 집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투자유치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제주기업의 발전 즉 제

주기업과 유치기업들 간의 기술이전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둘째, 제주기업과 유치기업간 네트워킹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유치타겟기업의 설정을 통한 동종기업들의 셋트 유치가 필요하다. 넷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가네트워크들의 활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투자유치업종다변화를 위한 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부실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일곱째, 투자자본과 지역주민 네트워킹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여덟째, 생산적 자본 유치를 위한 단기전략 동시 구축이 필요하다.

신용인(2013)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주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 세계환경수도, 특별자치도 등은 서로 모순되고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지정학적 위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담아내면서도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각종의 제주비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주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이를 구체화하는 3대목표로 첫째,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둘째, 섬과 치유의 본향인 자연치유의 섬 지정, 셋째,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 추진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일구는 씨울네트워크를 각각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조성찬(2016)의 연구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의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및 자본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이 아닌 새로운 발전모델을 탐색해야 하며, 이 모델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면서도 토지와 같은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은 지역 내부에서 공유해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전문가들에 의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방향설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즉 정작 개발의 열매는 도민에게 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제자유도시정책에 대한 도민신뢰도 저조, 제주의 가치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제주도민들이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민이 인식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과 평가 및 향후과제 조사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자치 1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 조사대상의 사각지대일 수 있는 미래 제주의 주역인 대학생을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탐색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일반도민 및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 및 향후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본 연구자가 지도교수로 참여한 2016년 제주대학교 제주리더스아카데미 2기 3팀의 연구 수행을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 자료의 일부이다. 전체 조사대상 500명(일반도민 200명, 대학생 300명)가운데 일반도민과 대학생의 인식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 일부만 포함하여 233명(일반도민 173명, 대학생 60명)을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구체적으로 233명의 응답자 중 남성은 97명(42.0%), 여성은 134명(58.0%)이고, 연령대별로는 20대 71명(30.6%), 50대 62명(26.7%), 40대 59명(25.4%), 30대 22명(9.5%), 60대이상 18명(7.8%), 20대 11명(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대학생 60명(26.2%) 주부, 농업 등의 기타 53명(23.1%), 사무직 47명(20.5%), 기술직 27명(11.8%), 서비스직 25명(10.9%), 전문직²⁾ 17명(7.4%)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 162명(69.8%), 서귀포시 동지역 31명(13.4%), 제주시 읍면지역 26명(11.2%), 서귀포시 읍면지역 13명(5.6%)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2) 전문직의 경우,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응답자 본인이 직업에 대해 전문직으로 응답한 수치임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n=231)	남	97	42.0
	여	134	58.0
연령대 (n=232)	20대	71	30.6
	30대	22	9.5
	40대	59	25.4
	50대	62	26.7
	60대 이상	18	7.8
직업 (n=229)	사무직	47	20.5
	기술직	27	11.8
	서비스직	25	10.9
	전문직	17	7.4
	대학생	60	26.2
	기타	53	23.1
거주지 (n=232)	제주시 동지역	162	69.8
	제주시 읍면지역	26	11.2
	서귀포시 동지역	31	13.4
	서귀포시 읍면지역	13	5.6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일반도민과 대학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지도, 성과 평가(만족도) 및 향후과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일반적 특성 관련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측정 변수가 많을 경우, 설문응답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설문에 대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 배경변수인 일반적 특성은 최소화하여 질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성별, 연령대, 직업, 거주지의 4가지 문항만 활용하였다.

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지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지도와 관련한 측정도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자체에 대한 인지도, 추진전담기구(JDC)에 대한 인지도 및 기관 성격에 대한 인지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필요성 동의여부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자체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질문은 5점 Likert척도³⁾를 이용하여 파악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잘 알고 있다는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추진전담기구(JDC)에 대한 인지도는 이름뿐 아니라 하는 일도 잘 알고 있다. 이름은 들어왔으나 하는 일은 잘 모른다. 처음 들어봤다 로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추진전담기구(JDC)가 어떤 성격의 기관인지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 제주도산하 지방공기업, 제주도산하 지방행정기관, 민간투자기업, 부동산개발회사 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동의 하지 않는다 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성과 평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 평가와 관련한 측정도구는 국제자유도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개별사업에 대한 만족도,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제주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만족도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과 평가 문항은 전체적으로 5점 Likert척도⁴⁾를 이용하여 파악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한다는 인식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제주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환경보존 등 3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라. 향후과제

제주국제자유도시 향후과제와 관련한 측정도구는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역점을

3) '전혀 모름=1점', '잘 알지 못함=2점', '보통=3점', '조금 알고 있음=4점', '매우 잘 알고 있음=5점'으로 구분함

4) '매우 불만족=1점', '약간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으로 구분함

두어야 하는 분야,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담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전반적인 호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소속 변경(중앙정부산하에서 제주도산하로)에 대한 의견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문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측정분야별 구성 문항

구분	구성 변수	문항 수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남, 여) -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 직업(사무직, 기술직, 서비스직, 전문직, 대학생, 기타) - 거주지(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4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자유도시 자체에 대한 인지도 - 추진전담기구(JDC)에 대한 인지도 - 추진전담기구(JDC) 기관 성격에 대한 인지도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 	4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성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제주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만족도 	3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 - 추진전담기구(JDC)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 추진전담기구(JDC)의 소속 변경에 대한 의견 	3

3. 자료분석방법

설문자료(data)는 부화화과정(coding)과 오류검토작업을 거친 후,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T-test 및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준 95%, 99%, 99.9% 신뢰수준에서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지도 부문

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자체에 대한 인지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성별($t=4.462, p<.001$), 연령($F=5.101, p<.01$), 직업($F=4.179,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성(평균 3.47점)이 여성(평균 2.92점)에 비해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지가 조금 높게 나타났고, 40대(평균 3.53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의 인지도(평균 2.80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술직(평균 3.52점)과 사무직(평균 3.51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생(평균 2.83점)의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국제자유도시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제주국제자유도시 자체에 대한 인지도

구분		N	M	SD	t/F	p값
성별 (n=231)	남	97	3.47	.948	4.462	.000***
	여	134	2.92	.926		
연령 (n=232)	20대	71	2.80	.904	5.101	.001**
	30대	22	3.32	.995		
	40대	59	3.53	.916		
	50대	62	3.19	.938		
	60대 이상	18	3.00	1.085		
직업 (n=269)	사무직	47	3.51	.856	4.179	.001**
	기술직	27	3.52	1.087		
	서비스직	25	3.32	.690		
	전문직	17	2.88	1.166		
	대학생	60	2.83	.905		
	기타	53	3.02	1.009		

거주지 (n=232)	제주시동지역	162	3.20	.960	.867	.459
	제주시읍면지역	26	3.12	.952		
	서귀포시동지역	31	3.10	.944		
	서귀포시읍면지역	13	2.77	1.235		

*p<.05, **p<.01, ***p<.001

나. 추진전담기구(JDC)에 대한 인지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의 추진전담기구(JDC)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성별($\chi^2=32.800$, $p<.001$), 연령($\chi^2=19.157$, $p<.05$), 직업($\chi^2=23.714$, $p<.01$)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이름뿐 아니라 하는 일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47.4%인 반면, 여성은 14.2%만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 응답자(76.1%)가 이름은 들어왔으나 하는일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16.9%만이 이름뿐 아니라 하는 일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0대(37.3%)와 60대(44.4%)의 추진전담기구(JDC)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직과 사무직의 경우 추진전담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66.7%가 이름은 들어왔으나 하는 일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15%는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하였다.

〈표 6〉 추진전담기구(JDC)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이름뿐 아니라 하는 일도 잘 알고 있다	이름은 들어왔으나 하는 일은 잘 모른다	처음 들어봤다
성별 (n=231)	남	46(47.4)	49(50.5)	2(2.1)
	여	19(14.2)	102(76.1)	13(9.7)
	계	65(28.1)	151(65.4)	15(6.5)
	$\chi^2=32.800^{***}$, $p값=.000$			
연령 (n=232)	20대	12(16.9)	49(69.0)	10(14.1)
	30대	6(27.3)	14(63.6)	2(9.1)
	40대	22(37.3)	37(62.7)	-(0.0)

	50대	17(27.4)	43(69.4)	2(3.2)
	60대 이상	8(44.4)	9(50.0)	1(5.6)
	계	65(28.0)	152(65.5)	15(6.5)
	$\chi^2=19.157^*$, $p값=.014$			
직업 (n=229)	사무직	19(40.4)	28(59.6)	-(0.0)
	기술직	13(48.1)	13(48.1)	1(3.8)
	서비스직	4(16.0)	20(80.0)	1(4.0)
	전문직	5(29.4)	12(70.6)	-(0.0)
	대학생	11(18.3)	40(66.7)	9(15.0)
	기타	13(24.5)	36(67.5)	4(7.5)
	계	65(28.4)	149(65.1)	15(6.6)
$\chi^2=23.714^{**}$, $p값=.008$				
거주지 (n=232)	제주시 동지역	49(30.2)	103(63.6)	10(6.2)
	제주시 읍면지역	5(19.2)	20(76.9)	1(3.8)
	서귀포시 동지역	6(19.4)	22(71.0)	3(9.7)
	서귀포시 읍면지역	5(38.5)	7(53.8)	1(7.7)
	계	65(28.0)	152(65.5)	15(6.5)
$\chi^2=4.182$, $p값=.652$				

* $p<.05$, ** $p<.01$, *** $p<.001$

다. 추진전담기구(JDC) 기관 성격에 대한 인지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의 추진전담기구(JDC)의 기관 성격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성별($\chi^2=16.265$, $p<.01$), 연령($\chi^2=40.832$, $p<.01$), 직업($\chi^2=59.159$, $p<.001$)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제대로 인지하는 응답자가 59.4%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 또는 제주도 산하 지방행정기관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57.3%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하면 30대 이상부터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제대로 인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인지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기술직의 인지도가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의 경우,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제대로 인지하는 비율은 25.4%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즉 국제자유도시 추진 14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추진전담기구 기관 성격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7〉 추진전담기구(JDC) 기관 성격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국토부산하 공기업	제주도산하 지방공기업	제주도산하 지방행정 기관	민간투자 기업	부동산개 발회사
성별 (n=227)	남	57(59.4)	27(28.1)	8(8.3)	3(3.1)	1(1.0)
	여	43(32.8)	58(44.3)	17(13.0)	10(7.6)	3(2.3)
	계	100(44.1)	63(37.4)	10(11.0)	6(5.7)	4(1.8)
$\chi^2=16.265^{**}$, $p값=.003$						
연령 (n=228)	20대	20(28.6)	27(38.6)	16(22.9)	7(10.0)	-(0.0)
	30대	9(40.9)	10(45.5)	1(4.5)	-(0.0)	2(9.1)
	40대	35(59.3)	19(32.2)	2(3.4)	2(3.4)	1(1.7)
	50대	24(40.7)	27(45.8)	5(8.5)	2(3.4)	1(1.7)
	60대 이상	12(66.7)	3(16.7)	1(5.6)	2(11.1)	-(0.0)
	계	85(50.3)	64(37.9)	10(5.9)	6(3.6)	4(2.4)
$\chi^2=40.832^{**}$, $p값=.001$						
직업 (n=225)	사무직	30(63.8)	17(36.2)	-(0.0)	-(0.0)	-(0.0)
	기술직	16(61.5)	8(30.8)	1(3.8)	1(3.8)	-(0.0)
	서비스직	10(43.5)	7(30.4)	3(13.0)	-(0.0)	3(13.0)
	전문직	6(35.3)	7(41.2)	3(17.6)	1(5.9)	-(0.0)
	대학생	15(25.4)	22(37.3)	15(25.4)	7(11.9)	-(0.0)
	기타	23(43.4)	23(43.4)	3(5.7)	3(5.7)	1(1.9)
	계	85(51.2)	62(37.3)	10(6.0)	5(3.0)	4(2.4)
$\chi^2=59.159^{***}$, $p값=.000$						
거주지 (n=228)	제주시 동지역	74(46.3)	64(40.0)	12(7.5)	7(4.4)	3(1.9)
	제주시 읍면지역	9(36.0)	10(40.0)	3(12.0)	2(8.0)	1(4.0)
	서귀포시 동지역	12(40.0)	7(23.3)	8(26.7)	3(10.0)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5(38.5)	5(38.5)	2(15.4)	1(7.7)	-(0.0)
	계	100(43.9)	86(37.7)	25(11.0)	13(5.7)	4(1.8)
$\chi^2=14.679$, $p값=.259$						

* $p<.05$, ** $p<.01$, *** $p<.001$

라. 국제자유도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살펴보면, 거주지($\chi^2=10.458$,

p<.05)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9.2%로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제자유도시 사업이 대부분 서귀포 읍면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개발사업지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경우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국제자유도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명, %)

구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성별 (n=224)	남	26(27.7)	68(72.3)
	여	46(35.4)	84(64.6)
	계	72(32.1)	152(67.9)
	$\chi^2=1.493, p값=.222$		
연령 (n=225)	20대	21(30.4)	48(69.6)
	30대	11(50.0)	11(50.0)
	40대	16(27.1)	43(72.9)
	50대	16(28.1)	41(71.9)
	60대 이상	8(44.4)	10(55.6)
	계	72(32.0)	153(68.0)
$\chi^2=5.685, p값=.224$			
직업 (n=222)	사무직	10(21.7)	36(78.3)
	기술직	6(22.2)	21(77.8)
	서비스직	8(34.8)	15(65.2)
	전문직	7(41.2)	10(58.8)
	대학생	20(34.5)	38(65.5)
	기타	21(41.2)	30(58.8)
	계	72(32.4)	150(67.6)
$\chi^2=6.227, p값=.285$			
거주지 (n=225)	제주시 동지역	48(30.6)	109(69.4)
	제주시 읍면지역	5(19.2)	21(80.8)
	서귀포시 동지역	10(34.5)	19(65.5)
	서귀포시 읍면지역	9(69.2)	4(30.8)
	계	72(32.0)	153(68.0)
$\chi^2=10.458^*, p값=.015$			

*p<.05, **p<.01, ***p<.001

2.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 평가 부문

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F=2.408$, $p<.05$)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기술직(평균 3.15점)이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직, 전문직, 대학생 등 타 직업군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보통(평균 3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구분		N	M	SD	t/F	p값
성별 (n=231)	남	97	2.79	.957	1.385	.167
	여	134	2.63	.864		
연령 (n=232)	20대	71	2.75	.823	.684	.604
	30대	22	2.50	.964		
	40대	59	2.81	1.025		
	50대	62	2.63	.873		
	60대 이상	18	2.61	.850		
직업 (n=229)	사무직	47	2.79	.806	2.408	.038*
	기술직	27	3.15	1.199		
	서비스직	25	2.40	.913		
	전문직	17	2.41	1.004		
	대학생	60	2.68	.873		
	기타	53	2.64	.762		
거주지 (n=232)	제주시 동지역	162	2.66	.953	.366	.777
	제주시 읍면지역	26	2.81	.694		
	서귀포시 동지역	31	2.81	.910		
	서귀포시 읍면지역	13	2.69	.630		

* $p<.05$, ** $p<.01$, *** $p<.001$

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률이 높은 불만족 이유는 자연환경 훼손 우려와 외국자본 잠식 우려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문화정체성 훼손 우려를 불만족 요인으로 꼽은 비율도 15.0%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0〉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자연환경 훼손우려	문화정체성 훼손우려	외국자본 잠식우려	생활여건 악화우려	낮은 실행가능 성
성별 (n=85)	남	15(44.1)	1(2.9)	10(29.4)	3(8.8)	5(14.7)
	여	19(37.3)	6(11.8)	19(37.3)	3(5.9)	4(7.8)
	계	34(40.0)	7(8.2)	29(34.1)	6(7.1)	9(10.6)
$\chi^2=3.694, p\text{값}=.449$						
연령 (n=85)	20대	6(30.0)	3(15.0)	8(40.0)	2(10.0)	1(5.0)
	30대	2(18.2)	1(9.1)	6(54.5)	- (0.0)	2(18.2)
	40대	12(54.5)	- (0.0)	8(36.4)	- (0.0)	2(9.1)
	50대	11(44.0)	2(8.0)	6(24.0)	3(12.0)	3(12.0)
	60대 이상	3(42.9)	1(14.3)	1(14.3)	1(14.3)	1(14.3)
	계	34(40.0)	7(8.2)	29(34.1)	6(7.1)	9(10.6)
$\chi^2=12.341, p\text{값}=.416$						
직업 (n=84)	사무직	6(40.0)	- (0.0)	7(46.7)	- (0.0)	2(13.3)
	기술직	3(37.5)	- (0.0)	4(50.0)	- (0.0)	1(12.5)
	서비스직	6(46.2)	- (0.0)	4(30.8)	2(15.4)	1(7.7)
	전문직	5(50.0)	1(10.0)	2(20.0)	1(10.0)	1(10.0)
	대학생	6(30.0)	3(15.0)	8(40.0)	2(10.0)	1(5.0)
	기타	8(44.4)	3(16.7)	4(22.2)	1(5.6)	2(11.1)
	계	28(43.8)	4(6.3)	21(32.8)	4(6.3)	7(10.9)
$\chi^2=13.495, p\text{값}=.855$						
거주지 (n=85)	제주시 동지역	26(40.6)	5(7.8)	22(34.4)	3(4.7)	8(12.5)
	제주시 읍면지역	4(57.1)	- (0.0)	2(28.6)	1(14.3)	- (0.0)
	서귀포시 동지역	3(33.3)	2(22.2)	3(33.3)	1(11.1)	- (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20.0)	-(0.0)	2(40.0)	1(20.0)	1(20.0)
	계	34(40.0)	7(8.2)	29(34.1)	6(7.1)	9(10.6)
$\chi^2=9.134, p값=.691$						

* $p<.05$, ** $p<.01$, *** $p<.001$

다. 국제자유도시 사업(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만족도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 가운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직업($F=3.389, p<.01$)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기술직(평균 3.41점)의 만족도가 타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사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M	SD	t/F	p값
성별 (n=230)	남	97	3.21	1.020	1.258	.210
	여	133	3.05	.829		
연령 (n=231)	20대	71	3.25	.731	1.547	.189
	30대	22	2.91	1.192		
	40대	58	3.24	.961		
	50대	62	2.95	.982		
	60대 이상	18	3.00	.686		
직업 (n=228)	사무직	47	3.38	.945	3.389	.006**
	기술직	27	3.41	1.248		
	서비스직	25	2.84	.850		
	전문직	17	3.06	1.088		
	대학생	60	3.20	.684		
	기타	52	2.79	.800		
거주지 (n=231)	제주시 동지역	161	3.15	.989	.781	.506
	제주시 읍면지역	26	3.04	.662		
	서귀포시 동지역	31	3.16	.820		
	서귀포시 읍면지역	13	2.77	.439		

* $p<.05$, ** $p<.01$, *** $p<.001$

라. 국제자유도시 사업(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만족도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 가운데 영어교육도시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성별($t=2.538$, $p<.05$), 직업($F=2.887$,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별,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성(평균 3.38점)이 여성(평균 3.05점)에 비해 영어교육도시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술직(평균 3.78점)의 만족도가 타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직의 만족도(평균 2.84점)는 낮게 나타났다.

〈표 12〉 영어교육도시사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M	SD	t/F	p값
성별 (n=230)	남	97	3.38	1.131	2.538	.012*
	여	133	3.05	.878		
연령 (n=231)	20대	71	3.23	.865	1.339	.256
	30대	22	2.86	1.125		
	40대	59	3.10	1.103		
	50대	62	3.23	1.015		
	60대 이상	18	3.56	.922		
직업 (n=228)	사무직	47	3.30	1.061	2.887	.015*
	기술직	27	3.78	1.155		
	서비스직	25	2.84	1.028		
	전문직	17	3.12	1.054		
	대학생	60	3.12	.846		
	기타	53	3.08	.926		
거주지 (n=231)	제주시 동지역	161	3.19	1.070	.212	.888
	제주시 읍면지역	26	3.15	.732		
	서귀포시 동지역	31	3.26	.930		
	서귀포시 읍면지역	13	3.00	.816		

* $p<.05$, ** $p<.01$, *** $p<.001$

마. 국제자유도시 사업(신화역사공원)에 대한 만족도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 가운데 신화역사공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연령(F=4.496, p<.01), 직업(F=3.952, p<.01), 거주지(F=4.656,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3-40대의 경우, 평균 2점대를 기록하며, 조금 불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대학생의 만족도만 보통수준(평균 3.15점)으로 나타났고, 타 직업군에서는 조금 불만족하는 수준(평균 2점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귀포 동지역 거주자(평균 3.35점)가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 신화역사공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M	SD	t/F	p값
성별 (n=230)	남	97	2.84	1.067	.290	.772
	여	133	2.80	.919		
연령 (n=231)	20대	71	3.18	.743	4.496	.001**
	30대	22	2.45	1.299		
	40대	59	2.66	.965		
	50대	62	2.60	.999		
	60대 이상	18	3.06	.938		
직업 (n=228)	사무직	47	2.87	1.013	3.952	.002**
	기술직	27	2.96	1.055		
	서비스직	25	2.44	.917		
	전문직	17	2.24	1.091		
	대학생	60	3.15	.732		
	기타	53	2.65	1.046		
거주지 (n=231)	제주시 동지역	161	2.68	.985	4.656	.004**
	제주시 읍면지역	26	2.96	.824		
	서귀포시 동지역	31	3.35	.950		
	서귀포시 읍면지역	13	2.92	.862		

*p<.05, **p<.01, ***p<.001

바. 국제자유도시 사업(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대한 만족도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 가운데 제주항공우주박물관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연령($F=4.925$, $p<.001$), 직업($F=3.786$,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대와 60대이상은 평균 3점대 이상으로 보통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30-40대의 경우, 평균 2점대로 평가하여 조금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대학생(평균 3.38점)과 기술직의 만족도(평균 3.12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 제주항공우주박물관사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M	SD	t/F	p값
성별 (n=228)	남	96	3.05	1.019	.649	.517
	여	132	2.97	.890		
연령 (n=229)	20대	71	3.39	.836	4.925	.000***
	30대	22	2.73	1.032		
	40대	59	2.88	.983		
	50대	62	2.71	.837		
	60대 이상	18	3.24	.970		
직업 (n=226)	사무직	47	2.98	.944	3.786	.003**
	기술직	27	3.12	.909		
	서비스직	25	2.80	.957		
	전문직	17	2.88	1.054		
	대학생	60	3.38	.865		
	기타	53	2.67	.909		
거주지 (n=229)	제주시 동지역	160	2.96	.980	.464	.708
	제주시 읍면지역	26	3.12	.766		
	서귀포시 동지역	31	3.13	.922		
	서귀포시 읍면지역	12	3.08	.900		

* $p<.05$, ** $p<.01$, *** $p<.001$

사. 국제자유도시 사업(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한 만족도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 가운데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연령($F=2.982, p<.05$), 직업별($F=2.501,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2점대의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가운데, 20대의 만족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술직(평균 2.89점)과 대학생(평균 2.88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M	SD	t/F	p값
성별 (n=230)	남	97	2.64	1.120	.287	.774
	여	133	2.60	.870		
연령 (n=231)	20대	70	2.83	.816	2.982	.020*
	30대	22	2.09	.868		
	40대	59	2.54	1.164		
	50대	62	2.56	.917		
	60대 이상	18	2.89	1.023		
직업 (n=228)	사무직	47	2.49	.930	2.501	.032*
	기술직	27	2.89	1.311		
	서비스직	25	2.24	.970		
	전문직	17	2.47	.943		
	대학생	59	2.88	.832		
	기타	53	2.49	.933		
거주지 (n=231)	제주시 동지역	161	2.53	.981	1.751	.157
	제주시 읍면지역	26	2.96	.871		
	서귀포시 동지역	31	2.68	1.077		
	서귀포시 읍면지역	13	2.85	.801		

* $p<.05$, ** $p<.01$, *** $p<.001$

아. 국제자유도시 사업(제주꽃자왈도립공원)에 대한 만족도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 가운데 제주꽃자왈도립공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3점대의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6〉 제주꽃자왈도립공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M	SD	t/F	p값
성별 (n=231)	남	97	3.28	.944	.316	.752
	여	134	3.24	.935		
연령 (n=232)	20대	71	3.48	.843	2.086	.084
	30대	22	3.23	.922		
	40대	59	3.10	.959		
	50대	62	3.10	1.020		
	60대 이상	18	3.44	.784		
직업 (n=229)	사무직	47	3.32	.980	2.218	.053
	기술직	27	3.52	.753		
	서비스직	25	2.92	.954		
	전문직	17	3.12	1.166		
	대학생	60	3.45	.811		
	기타	53	3.06	.989		
거주지 (n=232)	제주시 동지역	162	3.21	.974	1.234	.298
	제주시 읍면지역	26	3.19	.749		
	서귀포시 동지역	31	3.35	.798		
	서귀포시 읍면지역	13	3.69	1.032		

*p<.05, **p<.01, ***p<.001

자. 국제자유도시 사업(내국인면세점)에 대한 만족도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 가운데 내국인면세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성별(t=2.962, p<.01), 직업별(F=2.923,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별,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성(평균 3.48점)이 여성(평균 3.13점)에 비해 내국인면세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기술직의 만족도(평균 3.78점)가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전문직의 만족도(평균 2.82점)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7〉 내국인면세점사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M	SD	t/F	p값
성별 (n=229)	남	97	3.48	.867	2.962	.003**
	여	132	3.13	.920		
연령 (n=230)	20대	70	3.36	.820	2.056	.088
	30대	22	2.91	.964		
	40대	59	3.46	.857		
	50대	62	3.13	.922		
	60대 이상	18	3.33	.686		
직업 (n=227)	사무직	47	3.30	.883	2.923	.014*
	기술직	27	3.78	.751		
	서비스직	25	3.08	.909		
	전문직	17	2.82	.636		
	대학생	59	3.34	.993		
	기타	53	3.21	.915		
거주지 (n=172)	제주시 동지역	160	3.23	.892	.493	.687
	제주시 읍면지역	26	3.35	.797		
	서귀포시 동지역	31	3.42	1.119		
	서귀포시 읍면지역	13	3.38	.870		

* $p < .05$, ** $p < .01$, *** $p < .001$

차.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만족도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성별($t=2.851$, $p < .01$), 연령별($F=2.980$, $p < .05$), 직업별($F=4.208$, $p < .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성(평균 3.12점)이 여성(평균 2.77점)에 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술직(평균 3.41점)이 타 직업군에 비해 지역경제활성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8〉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만족도

구분		N	M	SD	t/F	p값
성별 (n=230)	남	97	3.12	1.023	2.851	.005**
	여	133	2.77	.869		
연령 (n=231)	20대	70	3.19	.098	2.980	.020*
	30대	22	2.64	1.049		
	40대	59	2.98	1.058		
	50대	62	2.71	.912		
	60대 이상	18	2.72	.826		
직업 (n=228)	사무직	47	3.09	.905	4.208	.001**
	기술직	27	3.41	1.010		
	서비스직	25	2.48	1.005		
	전문직	17	2.65	.996		
	대학생	59	3.05	.797		
	기타	53	2.68	.956		
거주지 (n=231)	제주시 동지역	162	2.82	1.062	.918	.433
	제주시 읍면지역	26	3.00	.707		
	서귀포시 동지역	30	3.00	.739		
	서귀포시 읍면지역	13	3.29	.756		

*p<.05, **p<.01, ***p<.001

카.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만족도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직업별(F=3.211, p<.01)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기술직(평균 3.41점)과 대학생(평균 3.05점)의 경우 일자리 창출 만족도가 평균 3점대의 보통수준 만족도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직(평균 2.48점), 전문직(평균 2.71점), 사무직(평균 2.87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9〉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만족도

구분		N	M	SD	t/F	p값
성별 (n=231)	남	97	3.01	1.085	1.481	.140
	여	134	2.82	.857		
연령 (n=232)	20대	71	3.03	.774	1.406	.233
	30대	22	2.55	.963		
	40대	59	3.00	1.130		
	50대	62	2.81	.989		
	60대 이상	18	2.83	.857		
직업 (n=229)	사무직	47	2.87	.850	3.211	.008**
	기술직	27	3.41	1.152		
	서비스직	25	2.48	1.122		
	전문직	17	2.71	1.047		
	대학생	60	3.05	.790		
	기타	53	2.77	.933		
거주지 (n=232)	제주시 동지역	162	2.86	1.015	1.542	.654
	제주시 읍면지역	26	3.08	.628		
	서귀포시 동지역	31	2.90	1.012		
	서귀포시 읍면지역	13	3.08	.641		

*p<.05, **p<.01, ***p<.001

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보존 만족도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연령(F=2.465, p<.05), 거주지(F=3.524,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 직업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만족도와 일자리창출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점대 초반의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20대의 환경보존 만족도(평균 2.50점)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제주시 읍면지역 만족도(평균 2.69점)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0〉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보존 만족도

구분		N	M	SD	t/F	p값
성별 (n=230)	남	97	2.16	.932	-1.105	.271
	여	133	2.30	.913		
연령 (n=231)	20대	70	2.50	.812	2.465	.046*
	30대	22	1.91	.811		
	40대	59	2.22	1.052		
	50대	62	2.16	.909		
	60대 이상	18	2.06	.873		
직업 (n=228)	사무직	47	2.04	.859	2.146	.061
	기술직	27	2.41	1.047		
	서비스직	25	2.12	.971		
	전문직	17	2.06	.827		
	대학생	59	2.53	.838		
	기타	53	2.13	.962		
거주지 (n=231)	제주시 동지역	162	2.13	.927	3.524	.016*
	제주시 읍면지역	26	2.69	.884		
	서귀포시 동지역	30	2.43	.817		
	서귀포시 읍면지역	13	2.38	.870		

*p<.05, **p<.01, ***p<.001

3. 제주국제자유도시 향후 과제 부문

가.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역점을 두어야하는 분야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3개 이상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여 질문한 결과, 자연경관보존(공원조성 등)사업이 186명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통인프라개선사업(123명), 원도심 재생사업(65명), 풍력에너지 등 에너지 개발 사업(52명), 택지개발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46명), 하수처리장 건설사업(45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1〉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역점을 두어야하는 부분(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일반도민	186	46	123	42	52	65	13	13	33	21	45	19	24	8

주1) ① 자연경관보존(공원조성 등)사업, ② 택지개발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 ③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④ 신공항 건설사업, ⑤ 풍력에너지 등 에너지 개발사업, ⑥ 원도심 재생사업, ⑦ 인천-제주간 해상운송 사업, ⑧ 해양관광인프라(오션마리나)사업, ⑨ 1차산업 지원사업, ⑩ 토지비축(토지은행)사업, ⑪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⑫ 쇼핑아울렛 조성사업, ⑬ 기업유치, ⑭ 기타

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를 평가한 결과, 성별($t=2.696$, $p<.01$), 직업별($F=4.213$,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별, 거주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평균 3.02점)이 여성(평균 2.69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직(평균 3.26점)이 타 직업군에 비해 호감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타 직업군의 호감도는 평균 2점대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JDC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구분		N	M	SD	t/F	p값
성별 (n=230)	남	96	3.02	.940	2.827	.005**
	여	134	2.69	.806		
연령 (n=231)	20대	71	2.89	.766	1.397	.236
	30대	21	2.52	.928		
	40대	59	2.98	.974		
	50대	62	2.77	.876		
	60대 이상	18	2.67	.840		
직업 (n=228)	사무직	47	3.09	.775	3.541	.004**
	기술직	27	3.26	1.130		
	서비스직	25	2.60	.866		
	전문직	16	2.56	.892		

	대학생	60	2.82	.792		
	기타	53	2.62	.790		
거주지 (n=231)	제주시 동지역	162	2.76	.951	1.671	.174
	제주시 읍면지역	25	3.16	.554		
	서귀포시 동지역	31	2.90	.597		
	서귀포시 읍면지역	13	2.92	.862		

*p<.05, **p<.01, ***p<.001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소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소속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현행대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 35% 수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 6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3〉 JDC의 소속 변경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현행대로 중앙정부산하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어야	기타
성별 (n=229)	남	35(36.5)	59(61.5)	2(2.1)
	여	47(35.3)	81(60.9)	5(3.8)
	계	82(35.8)	140(61.1)	7(3.1)
$\chi^2=.535, p값=.765$				
연령 (n=230)	20대	21(30.0)	47(67.1)	2(2.9)
	30대	9(40.9)	11(50.0)	2(9.1)
	40대	19(32.2)	39(66.1)	1(1.7)
	50대	22(6.1)	37(60.7)	2(3.3)
	60대 이상	12(66.7)	6(33.3)	-(0.0)
	계	83(36.1)	14(60.9)	7(3.0)
$\chi^2=12.722, p값=.122$				
직업 (n=227)	사무직	20(42.6)	26(55.3)	1(2.1)
	기술직	9(33.3)	18(66.7)	-(0.0)
	서비스직	10(40.0)	12(48.0)	3(12.0)
	전문직	6(35.3)	11(64.7)	-(0.0)
	대학생	19(36.5)	32(61.5)	1(1.9)

	기타	18(30.5)	39(66.1)	2(3.4)
	계	82(36.1)	138(60.8)	7(3.1)
$\chi^2=10.786, p값=.374$				
거주지 (n=230)	제주시 동지역	58(36.0)	100(62.1)	3(1.9)
	제주시 읍면지역	9(34.6)	15(57.7)	2(7.7)
	서귀포시 동지역	10(33.3)	18(60.0)	2(6.7)
	서귀포시 읍면지역	6(46.2)	7(53.8)	-(0.0)
	계	83(36.1)	140(60.9)	7(3.0)
$\chi^2=4.910, p값=.555$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향후 국제자유도시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도민공감대가 형성되는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도민 인식조사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지도, 성과 평가, 향후과제를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제자유도시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수준(평균 3점대)으로 나타났고, 추진전담기관인 JDC에 대한 인지도는 이름은 들어왔으나 하는 일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65% 수준으로 나타났고,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도 약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제자유도시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t=4.462, p<.001$), 연령별($F=5.101, p<.01$), 직업별($F=4.179,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추진전담기관인 JDC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chi^2=32.800, p<.001$), 연령별($\chi^2=19.157, p<.05$), 직업별($\chi^2=23.714,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JDC의 기관 성격에 대해서도 국토부산하 공기업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도민은 50%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 45% 이상의 응답자가 JDC의 기관 성격을 제주도산하공기업 및 제주도산하 지방행정기관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성격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chi^2=16.265, p<.01$), 연령별($\chi^2=40.832, p<.01$),

직업별($\chi^2=59.159$,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70%의 응답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거주지별($\chi^2=10.458$,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14년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결과로서 제주도 및 추진전담기구인 JDC가 국제자유도시사업에 대한 대도민 홍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방증하고 있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2점대 후반의 보통수준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직업별($F=2.408$,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연환경 훼손 우려와 외국자본 잠식 우려가 높은 응답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경우 문화정체성 훼손 우려를 불만족 요인으로 꼽은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오라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외국인 토지구입 증가에 따른 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점대의 보통수준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성별($t=2.851$, $p<.01$), 연령별($F=2.980$, $p<.05$), 직업별($F=4.208$,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 3점대를 겨우 넘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직업($F=3.211$,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점대로 조금 만족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연령($F=2.465$, $p<.05$), 거주지별($F=3.524$,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향후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국내외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개발의 열매가 일부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즉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향후과제를 분석한 결과, 국제자유도시로서 역점을 두어야 하는 과제로서 제주도민들은 자연경관보존(공원조성 등)사업, 교통인프라개선사업, 원도심 재생사업, 풍력에너지 등 에너지 개발사업, 택지개발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개선 사업,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제주지역 환경의 우수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연경관보존사업, 원도심 재생사업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추진전담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호감도가 평균 3점대 이하의 보통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JDC의 소속을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JDC의 특수성 및 사업추진의 장점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JDC 스스로 호감도 상승을 위한 도민신뢰도 제고 및 도민과의 소통창구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한정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일반화된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가 도민 인식을 조사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연구 및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 도민이 지지하는 정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신용인(2013), 제주의 통합비전,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 <법과정책> 제19집 제2호: 273-306.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양영철(1999), 국제자유도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정책> 5권 0호: 91-110.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이종수(2003), 논단: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정책 현안. <도시문제> 38권 419호: 93-10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정수연(2013),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제도의 발전방향.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8-65.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제주발전연구원(2016),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기념 세미나. 특별자치도 10년 평가와 미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2016),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연구
- 조성찬(2016),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토지 및 지대의 사유화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56권 0호: 44-79. 한국공간환경학회
- 최재현(2005),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과제와 발전전략 모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권 3호: 9-20. 한국도시지리학회
- 허찬국(2004),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현황과 평가. <제주도연구> 26권 0호: 203-222. 제주학회